

# 광주시, 시민 주도형 '걷고 싶은 길' 조성 본격화

공모로 '리빙랩' 사업 5곳 선정 주민 직접 보행환경 실태 진단 통학로 보행·자전거 버스 등 운영 강 시장 "보행 중심 도시 전환"

광주광역시 시민 주도형 '걷고 싶은 길'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2025년 걷고 싶은 길" 리빙랩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기획 의도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생활 속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은 △광주 에코바이크 △송정1동 △운암3동 △일곡동 △화정1동 주민자치회 등 총 5개 단체다. 각 지역에서는 주민이 직접 보행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실천하게 된다.

광주시는 선정된 5곳에 대해 각각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협의회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에코바이크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보행·자전거 BUS'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 등·하교할 수 있도록 보행·자전거 버스를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송정1동 주민자치회는 '누구나 걷고, 누구에게나 안전한 길 조성'을 목표로, 광산로 일대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운암3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초·중학

교 주변의 통학로 실태를 조사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활동을 추진하며, '우리가 만드는 안전한 길'을 실현할 예정이다.

일곡동 주민자치회는 마을 내 보행 단절 구간을 개선하고, 걷기 좋은 길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화정1동 주민자치회는 초등학교 주변 보행 안전시설 설치와 주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한 등·하교길'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보행 중심 도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 실천 사례를 축적해 '대자보 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다.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광주의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sanga.jeong@jnilbo.com

## 본보 '기록, 민주화의 길' 사진전 성료

민주주의 역사 발자취 조명 6월 항쟁 등 광주 모습 생생 시민들 "광주희생 잊지 않겠다"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를 위한 광주의 치열한 투쟁의 순간들을 기록한 사진전 '기록, 민주화의 길'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전남일보와 광주광역시 공동 주최한 이번 사진전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1차 전시회에 이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2차 전시로 이어졌다.

전시에는 김양배 전남일보 사진기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50여점이 공개됐다. 김기자는 1987년부터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재학 시절 민주화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 왔으며, 1991년 전남일보 입사 이후 현재까지 광주와 전국의 주요 민주화 운동 현장을 꾸준히 카메라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는 광주가 겪어온 고난과 이를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의 흔적을 돌아보고, 오늘날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시가 진행된 광주시청 1층 로비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광주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사진들로 채워졌다.

1차 전시에서는 광주 5·18민주화운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시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들이 담겼다. 이어진 2차 전시에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기간 동안 광주 지역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 현장, 전남대 김승남 총학생회장과 박춘애 총여학생회장의 삭발의

식과 혈서 작성, 연와시위 장면 등이 조명됐다. 또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의 이장 장면, 조선대 학생이자 의문사 피해자인 이철규 열사의 장례식, 명동성당 촛불시위, 신홍택시 기사들의 연대 시위 등 광주의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깊이 있게 기록한 사진들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역사 교육의 장을 제공했다.

시민 참여도 눈에 띄었다. 전시장 한편에 마련된 쪽지함에는 관람객들의 소감이 줄을 이었다.

한 시민은 "송고한 광주시민의 희생이 존중받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꿈꾸고 응원합니다"고 쪽지를 통해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광주 시민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민주화 시대가 가능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고 글을 남겼다.

이번 전시는 외국인 관람객의 발길도 끌었다. 광주시청을 찾은 외국인들은 각자의 모국어로 민주주의에 대한 소감을 적으며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를 공유했다. 글·사진·정상이 기자



한 시민이 지난 10일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전남일보와 광주광역시 공동 주최로 열린 '기록, 민주화의 길' 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 광주시, 16~20일 하남대로 일부 구간 '교통 통제'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 개설 출퇴근 시간 피해 주·야간 실시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와 첨단산단을 잇는 도로개설 공사로 하남대로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오는 16~

20일까지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는 하남대로 구간(북구동림동 933-70 일원)에 대해 부분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공사'는 상무지구 시청사 뒤편과 첨단 보훈병원 간 4.98km를 잇는 4~6차선 도로 신설

사업이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빙고을대로 교통량 분산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부분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하남대로 구간은 철도 광주선과 하남대로를 횡단하는 코스로 총 연장 880m, 폭 21m 규모의 영산강대교(가칭)를 신설하는 공사가 진행된다.

종합건설본부는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이 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주

간과 야간에 거더(다리 상판 밑에 끼는 보의 일종) 설치 공사를 진행, 도로를 탄력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교통 통제는 공사 일정과 작업 구간에 따라 날짜별, 시간대별로 달리해 실시한다. 총 왕복 6차로 중 4개 차로를 일시 통제하고, 나머지 2개 차로를 활용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16~17일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부분통제가 실시된다. 17일 야간에는 시간당 15분씩 전면 통제가 이뤄진다.

19~20일은 주간(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통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인근에 안내 표지, 현수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상이 기자

## 세계인의 섬 청정제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요 일정**

- 제1일:** 지역별 부두출발 - 제주항 도착 - 숙소
- 제2일:** 카멜리아힐-농원석부작테마공원-올레길걷기체험-산방산유람선(결항시더마파크)  
-한라수목원-한방본초죽육-숙소
- 제3일:** 기념품전시매장-사려니숲-승마체험-스카이워터쇼 or 태권마살아트공연-성음민속보존마을  
-아쿠아플라넷수족관관람-제주농수산직매장-숙소
- 제4일:** 제주항 도착 후 승선수속 - 제주항 출발



**실버클라우드 전경**  
안도출발 02:30 / 15:00  
제주출발 07:20 / 19:30



**골드스텔라 전경**  
안도출발 09:20  
제주출발 16:00



**산타모니카 전경**  
진도출발 08:00  
제주출발 11:00



**퀸제누비아II 전경**  
목포출발 08:45  
제주출발 16:45

**해외여행, 수학여행, 기업연수, 등반, 단체관광 전문**

**골드스텔라** (안도↔제주)  
(금빛 로드를 잇는) 모던 프레스티지 카페리

**실버클라우드** (안도↔제주)  
국내 기술로 건조한, 첫 대형 카페리

**산타모니카** (진도↔제주)  
초 쾌속 카페리

**퀸제누비아II** (목포↔제주)  
최대 최고 초호화 크루즈형 여객선

**광주-전남 총판 현대관광 서재웅(010-7375-1357) 061-245-0099**

**제주여행은 송죽레저관광과 함께 T.064.747-8000 F.064.747-2590 H.010-6865-7000**